

달성군의회,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정책토론회

달성군의회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3일(화)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야외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은숙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이연숙 부위원장,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 북구의회 김종련·채장식 의원, 수성구의회 정경은·최명숙 의원과 관련 노동



조합 대표자, 관계 공무원 및 이동노동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종 운영위원장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휴서울이동노동자 서초 쉼터를 시작으로 전국 70여

개의 쉼터 현황을 소개하며 이동노동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과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조했다.

김보현 기자는 출입 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확한 이용자 통계 작성과 편의점, 카페 등

과 연계하는 간이 쉼터 설치를 제안하며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쉼터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동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휴식 공간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크다.”며 “쉼터 설치가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본 토론회를 주관한 양은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입안하는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이동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최준업 객원기자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제46기 가을학기 평생교육’ 수강생 모집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관장 박성수)에서는 청소년과 유아들은 물론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과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일(월)부터 ‘제46기 가을학기 평생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가을학기 평생교육 강좌는 9월 2일

(월)~11월 30일(토)까지 운영하며, 유아,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40개 강좌를 개설·운영한다.

강좌는 ▷유아(아름다운 종이접기 세계, 원어민 영어) ▷청소년(바이올린, ChatGPT를 나의 영어 비서로!, 아름다운 종이접기 세계, 비편아트 등)

▷성인(힐링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라인댄스 등)을 대상으로 취미, 체육, 교양, 전문교육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편성했다.

박성수 관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강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의)053-760-7724

(자료제공: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국내 최초 아시아 영화 중심

AsiaM

추억의 홍콩 클래식 명작부터 트렌디한 신작까지
다채롭게 편성하는 뉴트로 채널

푸른방송 110번 KT 90번 SKB 80번 LGU+ 55번